

A-2.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이차 수술시 다양한 수술법과 임시 수복물을 활용한 주위 연조직 처치

조인우*, 홍기석, 임성빈, 정진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임플란트가 도입된 초기에는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골유착과, 기능성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지속적인 임플란트의 발전으로 심미적인 요소가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은 심미성의 회복이 다른 부위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1차 수술이 선행되어야 하고, 2차 수술 시기에 다양한 연조직 처치를 통하여 부족한 융선의 개선 및, 치간 유두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이차 수술시에 healing abutment를 통한 연조직 치유는 임시 수복물의 장착을 방해하여 심미성을 저해하며, 술자가 원하는 emergence profile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임플란트 2차 수술시 다양한 연조직 처치와, healing abutment 대신 개별화된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여 심미성을 개선 시킨 증례를 보고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상악 전치에 임플란트 1차 수술 중, surgical index method를 이용하여 인상채득을 시행하고, 임시 수복물을 제작한 후 5~6개월 경과 후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제작된 임시 수복물을 fixture에 연결하고, 치유 양상을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2차 수술시에 시행한 연조직 처치와 임시 보철물 장착으로, 술자 및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향후 보철 수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